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강좌**' 시리즈의 29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3대 권력세습의 배경과 권력기반 구축 과정, 김정은 체제의 권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로, 반드시 통일부



[www.uniedu.go.kr/ebook](http://www.uniedu.go.kr/ebook)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통일부 통일교육원

# *contents*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제1장 권력세습의 배경	05
1. 북한체제의 속성	06
2. 권력세습의 정치적 함의	09
제2장 김정일의 권력세습	15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20
2. 권력세습의 특징	37
제3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43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44
2. 권력세습의 특징	62
제4장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비교	69
1. 환경적 측면	70
2. 절차적 측면	72
제5장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및 안정성	81
1. 권력구조	82
2. 체제운영	87
3.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88
제6장 맺음말	105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chapter 1*



CHAPTER 1

제1장

권력세습의 배경

1. 북한체제의 속성
2. 권력세습의 정치적 함의

## 제1장

# 권력세습의 배경

1

### 1. 북한체제의 속성

북한체제는 최고지도자인 수령이 북한의 핵심통치기구인 노동당·행정부·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유일지배체제이다. 이러한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논리가 ‘주체사상, 유일지도체계, 혁명적 수령관’이다.

북한이 주창하는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민의 주체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있다. “인민 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다. 인민 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 대중이 주체적으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지도자, 수령이 필요하다”는 정치논리로서 수령론이 정립되었다. 즉 인민대중은 그 자체로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나 운명개척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염원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만들 방도를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적인 존재인 수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수령이 인민들 각자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수령론의 핵심이다.<sup>1</sup>

수령론이 정립될 당시의 수령은 김일성이었다. 김일성 유일지배를 정당화시킨 수령론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수령만이 역사발전의 주체이고 수령은 무오류의 인간으로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혁명적 수령관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해나가는 정치논리로서 “수령의 영도를 통해서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주의적(專制主義的)인 수령영도론”으로 논리를 발전시켜 나갔다.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시켜온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원래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

다. 이러한 정치논리 속에 북한은 곧 수령의 체제가 되었고, 김일성과 북한체제가 등식이 되는 체제가 되었다. 혁명적 수령론은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북한 지도자는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직책을 맡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노동당의 핵심 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 비서국의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상의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현행 헌법<sup>2</sup>상의 최고지도자 지위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4월 13일에 개정된 헌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절을 새로 신설했다. 제1위원장은 헌법상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군사적 최고지도자로 규정했다.<sup>3</sup>

뿐만 아니라 북한의 규범체계에서 보면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보다 지도자의 지시가 상위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수령론과 제도적 권력, 규범체계를 종합하면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곧 북한체제이고, 최고의 통치기구라고 볼 수 있다.

## 2. 권력세습의 정치적 함의

유일지도의 수령영도체계에서 권력의 승계문제란 당연히 수령의 교체문제를 말한다. 북한에서의 후계자 선정이란 혁명과업의 완성이라는 수령의 대업을 이어갈 지도자를 찾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혁명과업은 완전무결한 수령의 영도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 수행해야 하며, 수령의 대를 이어 일할 수 있는 후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북한의 후계자란 곧 수령의 역할을 이어받을 미래의 또 다른 수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령론에 입각해서 북한은 후계자가 되기 위한 다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sup>4</sup> 첫째,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해야 한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충실하지 못하면 중도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충실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둘째, 수령의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을 그대로 체현해야 한다. 셋째,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공헌으로 인해 인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을 지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세습을 정당화시킨 가장 본질적 이유는 북한 체제의 주권이 ‘인민’이 아닌 ‘김씨 일가’



김정은과 김정일(2010. 10. 10)

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 현행 북한헌법은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북한당국이 스스로 북한체제가 실질적으로 ‘세습군주제’임을 확인해 주었고, 주권 관련 북한헌법 내용은 아무 정치적 의미가 없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왕조체제란 군주가 통치권 전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통치기구들은 군주의 권력집행기관에 불과한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주민들은 군주를 선택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다. 세습군주제는 군주의 지위가 주민의 의사가 아닌, 군주의 의사에 의해 군주 가족일원에게 상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왕조체제 하에서 영토와 국민들은 군주의 세습재산으로 간주된다.

북한 정치체제는 모든 주권이 국왕에게 귀속되어 있는 왕조체제적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신년사를 통해 1912년에서 2011년의 한반도 근·현대사를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로 분장시키고 있다. 북한은 놀랍게도 우리민족의 이름을 ‘김일성민족’이라고 때때로 칭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문건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은 김일성을 왕조 창업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을 왕조의 신민으로 생각하고 있다. 왕조체제라는 시각에서 볼 때 노동당 등 북한의 통치기구들은 김 부자 체제의 권력집행기관이지,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는 아니다.

북한 헌법의 공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다. 그러나 북한정치의 현실적 정체성은 김일성을 시조로 한 세습왕조 체제로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정치용어는 우리인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과 전혀 관계가 없다. 북한 지도자가 후계자를 지명하고, 북한의 권력기구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해가는 권력변동 양식은 왕조식 권력승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f o o t n o t e

- 1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2003, pp.6~7
- 2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헌법을 다시 개정했다.
- 3 2012년 4월 개정한 북한헌법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 4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2005, pp.348~350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chapter2*





CHAPTER 2

제2장

김정일의 권력세습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2. 권력세습의 특징

## 제2장

## 2

## 김정일의 권력세습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사회주의 체제내의 권력승계 문제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되어왔다. 의회주의 혹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권교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명확한 규칙에 의해 진행되는 ‘보이는’ 승계라고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은 낮은 수준의 제도화, 절차 및 게임규칙의 결여로 특징지어지는 ‘보이지 않는’ 승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변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정치학자들은 권력승계 과정에 지적인 관심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끊임없는 관심과 분석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에 관한 신뢰할 만한 이론적 접근법이나 개념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홈즈 교수가 지도자의 등장과정을 이론

화한 「3Ps + X 이론」은 1인 절대권력이 통치하던 공산국가의 승계과정을 비교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3Ps + X」란 권력을 승계받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말한다. 절대권력자로부터 권력을 승계 받으려는 자는 △권력기반(power-base)을 강화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personalities)을 획득하며, △정책능력(policies)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더라도 전임 지도자가 사망하거나 실각하는 등의 정치상황이 만들어져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필요로 하는 특수상황(special features)이 발생해야 권력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5</sup>

권력기반을 확보해야 하는 요소는 승계준비 과정에서 승계자는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관의 최고지위를 직접 차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주요한 권력기관을 장악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도자의 인격적 자질은 지도자와 인민들에게 투영되는 지도자적 자질을 의미하며, 정책능력은 대내적으로는 다른 지도자를 설득하고 인민의 정치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수행 능력을 말하며 국제관계에서 국익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능력을 뜻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외에도 현 지도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천재지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특수한 정치상

황의 발생이 지도자의 승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개인적 자질, 정책능력, 권력기반을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확보한 류사오치는 마오쩌둥의 건재라는 국내적 권력상황과 중소분쟁의 격화라는 국외적 상황 때문에 권력승계에 실패했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만약 승계 준비 기간 중에 마오쩌둥이 연로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류사오치가 권력을 승계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마오쩌둥과 류사오치

한편 권력승계는 안정적 승계(smooth transitions)와 투쟁적 승계(succession struggles)로 나누어진다. 다소 자의적인 주장이지만 흠즈는 5년 이내에 주요한 연속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권력승계로 간주했고, 5년 이내에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교체되고 중요한 정책대안이 제기되고 지도자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투쟁적 승계라고 간주한다. 홈즈의 「3Ps + X 이론」은 안정적 승계를 위한 김정일의 권력승계 준비작업의 성숙도와 승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북한의 권력승계 절차는 당·정의 최고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방위원회 최고직위(제1위원장)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노동당 최고직위(제1비서)는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 대회 또는 당 대표자회에서 추대(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 당 국가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당 최고직위(제1비서)의 승계여부가 권력승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제도적 승계보다 실질적 승계가 중요하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에 최고사령관직을 차지하고, 1997년 12월에 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1998년 9월에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과 동시에 공식 지위와 관계없이 권력승계를 완성하였다. 황장엽 씨 등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직위와 관계없이 1990년 이전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였다.

##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북한은 1972년에 전면적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1972년 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 권력을 집중시켰고,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했다. 1973년을 전후하여 김정일은 ‘당 중앙’으로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였다. 1973년 9월에 비공개리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당권의 핵심인 중앙당 조직 및 선전선동 비서로 임명하고 “김정일을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지도자로 추대하는데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sup>6</sup> 1972년 12월 27일 단일지도체제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 9개월 만에 노동당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 개정 이후 노동당 내부 합의를 진전시켜 당의사 결정기구를 통해 1년여 내에 ‘새 후보자’를 비공개리에 추대한 것이다.

김정일 호칭문제와 관련해서는 1973년 9월 김정일이 조직·선전비서가 된 이후 당 내부에서 ‘친애하는 당 중앙’, ‘영명한 친애하는 지도자’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부터는 각종 출판물이나 공식 간행물에 ‘영광스러운 당 중앙’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1975년 10월 당 중앙위 제5기 10차 전원회의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로 공식 결정되면서

보편적인 호칭으로 정착되어 갔다. 1974년 10월에는 ‘속도전’을 적용하여 ‘70일 전투’를 발기<sup>7</sup>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 공로로 1975년 2월 15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정무원 결정으로 그의 생일인 2월 16일이 임시휴무일로 지정되었다.<sup>8</sup>

북한은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한편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개하였다. 지도부 구성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되고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김정일의 주석단 서열은 김일성, 김일, 오진우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나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 군사위원회에 모두 직책을 가진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 2명으로 실질적인 2인자였다. 김정일은 1년 후인 1981년 10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노청) 7차 대회부터 김일성 다음으로 서열이 격상되었다.<sup>9</sup> 이 6차 당 대회에서는 ‘혁명 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었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1983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였는데 중국으로부터 차세대 지도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김일성 현지지도 수행(1982)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원회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로 취임함으로써 김일성 유고를 대비한 군권을 장악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은 국방위원장직을 국가주석직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승계하기 전에 국방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실제로 김정일은 1993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다.<sup>10</sup>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3년여 동안 과거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노동당 총비서, 주석 등의 공식직함을 승계받지 않았다. 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 3개월이 되는 1997년 10월 8일 김



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되었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지 1년 후인 1998년 9월 5일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최고인민회의(제10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김일성이 그의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노청) 6차 대회 연설(1971. 6. 24)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1972년 12월 22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6차 전체회의에서 후계자로 결정되었으며, 1974년 2월 13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당 고위 보직을 맡았고,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1980. 10. 10 ~ 14)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 1) 권력기반(power-base)

김일성 사망으로 권력을 상속받기 직전에 김정일은 북한체제의 중추적 권력기관인 노동당, 정무원, 군부 가운데 권력구조상 정점에 있는 노동당의 모든 기구에서 서열 2위에 올라있었다. 그는 당 정치국원이며, 당 비서국에서 당 사업전반을 관장하는 비서인 동시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김정일은 당내서열 2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1980년의 제6차 당 대회에서는 5차 당 대회의 중앙위원 172명을 248명으로 증원

시킨 바, 그중 70.6%가 신진인물로 충원하였는데, 이는 김정일 승계체제 확립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되었다.<sup>11</sup>

김정일의 승계체제를 지지해 준 주요 인적자원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동기생’들로서, 김정일은 제1기생으로 1953년에 졸업하였으며 오늘날까지 2,0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배출된 바 있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각 주 요기관의 주요간부로서 등용되었다. 이 학원 출신들은 당 중앙위원회에 20%,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30%,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에 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당내에서 김정일의 지원기반으로 활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만경대학원 출신으로 김정일의 주요한 측근으로는 오극렬(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봉원(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김두남(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있었다.<sup>12</sup>

한편, 김정일을 지지한 세력은 ‘3대혁명 소조원’으로서,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하게 되자 3대혁명 소조운동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김정일 통치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 3대혁명 소조운동의 투쟁목표를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에 두고 이를 내세워 당 간부들을 김정일 지지 세력으로 대폭 교체하여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소조운동은 직접적으로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더불어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그 구성과 임무 및 소조운동에 대한 각종 평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소조운동이 상당시간 경과했으므로 당·정·군 각 분야에서 소조원들로 많이 교체되었다. 3대혁명 소조원들은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친위대, 근위대의 명예를 빛내어 나가고 있다”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김정일의 친위대, 근위대로 성장해 갔다. 특히 소조원들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면서 성장하여 김정일 후계체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원로 간부들을 압박하여 김정일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둘째, 3대혁명 노선의 당위성과 소조운동의 성과를 부각시켜 그것이 김정일의 지도력에 의한 것으로 연결시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3대혁명은 공산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 혁명의 과업이며 노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3대혁명은 김일성의 영도와 김정일 지도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운동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모든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선전하였다. 그 결과 3대혁명 소조에 참가한 청년인텔리들은 연로한 간부들과 교체될 새로운 간부로서 성장하였으며, 그들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기존 정치기구와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김정일의 당내 권력 기반 구축과 엘리트의 세대교체라는 이중적 과제를 담당한 매우 중요한 승계준비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13</sup>

군부는 반 김정일 세력으로 응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적 역량을 가진 집단으로 자주 거론되었으나, 김정일은 당내 기반의 확보와 함께 군부의 장악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세력 약화, 숙청, 자연도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군부 내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자파의 인물들을 군부의 요직에 올려놓은 결과, 198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기존의 오진우를 비롯한 빨치산세대들과 함께 오극렬로 대표되는 신진세력들을 강력한 군부 내 지지 세력으로 보유하게 되었다.<sup>14</sup>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에서 확대되고 공식화된 국방위원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에 이어 서열 2위인 제1부위원장에 올라 있는 것으로 발표됨으로써 군부 내에 권력기반을 구축하

고 있음을 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이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북한은 1992년 1월 27일 김정일의 사령관 추대를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 북한 인민의 운명 개척,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간부들의 충성을 다짐받았다. 1992년 4월 21일 김정일이 오진우와 함께 원수로 추대되어 군부 내에 확실히 권력기반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일은 김일성의 전폭적인 후원 속에 당의 권력을 우선 장악한 후 그의 잠재적 지지 세력인 만경대학원 출신과 3대혁명소조를 중심으로 행정부에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군부의 권력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기간에 자행된 대표적인 대남도발들도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1972년 2월부터 1994년 7월까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기 시기에 북한이 시도한 주요한 대남도발은 다음 도표와 같다.

##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의 주요 대남도발〉

시기	내용
1976. 8. 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 10. 9	미얀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1987. 11. 29	대한항공 KAL858기 공중폭파 사건

기간 중에 일어난 모든 도발 사건들이 김정일의 승계준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8.18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과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은 김정일의 승계준비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3년여를 경과한 시점인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통상적인 작업을 하던 미군을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두 명을 살해했다. 김정일은 판문점 도발을 통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북한의 당 및 군원로부터 의심받던 군사적 카리스마를 얻고, 대담성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 3년여 지난 시점인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당시 버마)의 수도 랑군에서 미얀마를 공식 방문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행에 대한 폭탄테러를 자행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의 각료와 수행원 17명

이 사망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김정일이 공식후계자가 된 이후 군부의 지지를 확고하게 끌어내기 위한 국내정치적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군이 도끼로 미군을 공격하는 모습(1976. 8. 18)



북한 공작원들의 폭탄 테러로 뼈대만 남은 아웅산 묘소(1983. 10. 9)

## 2) 자질(personalities)

황장엽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했다”고 했다. 김정일은 일찍이 “권력의지를 갖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권력기반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고, 권력장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하는가”를 잘 숙지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김정숙을 잃고 두 동생을 돌봐야 했던 김정일은 효성을 강조하여 아버지 김일성의 환심을 쌓았다. 아울러 김일성의 해외순방길에 동행<sup>15</sup>하며 일정과 수행업무를 직접 챙기는가 하면 현장 방문시 전문가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지도자 학습에 열의를 표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쌓아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의 권력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자질을 강화했다. 김정일은 1957년 9월(15세) 남산고급중학교에 입학해서는 민주청년동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1960년 8월에 졸업하게 된다. 김정일은 이때부터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과외 학습을 받았으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당·정·군의 대규모 정치행사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의 진행상



황을 방정했다. 1960년 9월부터 1964년 3월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다니면서 북한체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소양을 쌓고, 체제를 같이 이끌어갈 세력을 규합해 갔다. 김일성이 원하는 외국유학을 하지 않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진학한 것도 권력장악 준비와 관련되어 있다.<sup>16</sup>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그는 계모 김성애와 그녀의 자녀들을 ‘결가지’라 하여 냉혹하게 실각시켰다.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는 1969년 2월 여성동맹 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김성애와 그 측근들은 대거 몰락하였다. 김성애와 그 자녀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지방으로 진출보내거나 좌천, 숙청함으로써 고립시키는 정치기교를 보여주었다.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 분야는 선전선동 분야이다. 김정일은 1970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면서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절의 대본을 직접 쓰고 공연했다고 한다. 가극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여 1년여 기간에 5대 혁명가극인 ‘피바다’(1971. 7), ‘당의 참된 딸’(1971. 12), ‘밀림아 이야기하

라'(1972. 4), '꽃피는 처녀'(1972. 11), '금강산의 노래'(1973년)를 제작했다. 1971년 7월 17일에 김일성과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연의 막을 올린 '피바다'는 항일 빨치산들의 항일투쟁시절을 생생하게 재연시켜 이들을 감동시켰다. 이 공연은 혁명 1세대 원로들로 하여금 김정일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김정일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윤리인 효성을 활용하여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고, 후천적으로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통치기교를 익히고, 선전선동술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자질을 보여 주었다.



인민군 창건 60돌 경축 열병식에서 김정일과 김일성(1992. 4. 25)

### 3) 정책능력(policies)

일반적으로 지도자의 자질과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능력은 지도자의 자질 중 핵심적 구성부분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질은 정치행태학적, 정치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관찰하는데 비하여 정책 능력은 그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과업내용과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선전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를 통해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견고한 토대를 만들었다. 김정일은 1972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회 생일을 계기로 중앙당 및 국가·경제 기관을 비롯한 각 분야의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을 제시하여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공식적으로 후계자가 된 이후 김정일은 체제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현장지도와 시찰을 확대했다. 초기에는 문화·보건·체육 등의 분야에서 1983년부터는 경제·군사부문 등에까지 공개 활동의 폭이 넓어졌다.<sup>17</sup> 이러한 선전의 연장선

상에 보면 1980년대 이후 북한체제가 진행한 대규모 사업들은 김정일의 업적, 정책능력으로 치장될 수 있다. 평양의 개선문, 유경호텔 등 기념비적 건축과 남포갑문 등 대자연 개조사업, 평양축전 등 대규모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외교능력과 관련하여 김정일은 중국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발전시켰지만 개혁·개방의 시기를 놓쳐 북한체제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가 된 이후인 1983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한 이후 중국 지도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권, 그리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체제를 발전시킨 1990년대에 ‘우리식 사회주의’에 집착하여 단기적으로 체제를 보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체제의 본질적 위기를 만들었다.

김정일의 정책능력은 북한당국에 의해 선전되는 부분과 실질적 성과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선전내용만 보면 북한이 지금보다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최고 최빈국이 되었다. 서구학자들로부터 ‘실패한 체제’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 4) 특수상황(special feature): 김일성 사망 시기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식적 후계자가 된 이후 권력이 강화되고, 이에 반비례적으로 김일성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사망했던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 동상 참배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소집하고 장례식을 치루었다. 사망 이후 43일 만에 북한당국은 김정일을 유일 지도자로 호칭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북한당국은 김일성 사망 이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실질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상으로는 199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명의로 당 총비서로 추대되었고, 1998년 9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으로써 권력승계 절차를 완결지었다.

####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승계 과정〉

시기	내용
1994. 7. 8	김일성 사망
1994. 7. 10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소집 지시
1994. 7. 18	평양방송,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일성 노선 고수 다짐
1994. 7. 19	김일성 장례식
1994. 8. 21	김정일을 '유일적 영도자'로 호칭 시작
1994. 9. 6	김정일, 사실상 주석직 업무 수행
1994. 9. 10	중앙방송, 김정일에 대한 '위대한 수령' 공식 호칭 사용
1997. 10	노동당 총비서 추대
1998. 8	헌법개정,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당국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 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장례식 이전에 실질적으로 승계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제도적 승계는 1997년 당 총비서를, 1998년 국가기구의 주석직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음으로서 완성되었다.

## 2. 권력세습의 특징

김정일의 권력승계 준비현황을 「3Ps + X이론」을 토대로 검토할 때 철저하게 준비된 권력승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기반을 강화할 기회를 주었고, 김정일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당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권력을 장악하는 순서로 승계준비를 진행했고, 자질 및 정책능력은 선전선동 능력에 의해 나타났다. 김정일은 대학졸업 이후 당 비서국 조직담당부서를 통해 당을 완전히 장악하여 갔다. 아울러 호위총국에 근무하면서 김일성 측근들을 장악하고, 당 선전선동부를 맡아서 자신의 지도자적 이미지를 만들어 갔다. 준비의 마

지막 단계에 군부를 장악했다. 군부를 장악한 이후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권력승계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

둘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권력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권력승계가 진행되고 있었다. 1991년 12월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1993년 4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이미 당·정·군 권력체계에서 군사권력이 김정일에 이양되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다. 1980년대 6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했다.





footnote

5 Leslie Holm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England: Oxford University), 1986, pp.177~209

6 『조총련 학습자료』, 1982. 2

7 '70일 전투'가 끝난 후에는 평양시 건설과 각지의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8 1982년 2월부터는 정식 휴무일로 지정했으며, 1992년 50회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선전기관들은 김정일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부르기 시작했다. 김일성 사후 1995년 2월에는 김정일 생일 행사의 일환으로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9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1998, pp.156~157

10 전용석,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 『근로자』 제10호, 1991, p.31

11 전경만 외, 「중·소 및 동구의 개방화와 북한의 변화전망」, 국방연구원, 1990, pp.134~135

12 이관세, 「김정일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89, p.89

13 Ibid, pp.66~67

## footnote

- 14 차두현, 「김정일 권력승계에 있어서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p.71
- 15 북한의 『조선전사년표 2』는 김정일이 1964~66년의 3년간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장기출장(인도네시아 방문 등) 15회를 포함하여 모두 31회나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 신일철, “김정일체제 관리경론과 그 연명술”, 『김정일 체제관리론의 분석과 전망』, 고려대북한학연구소 창립 1주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6, p.12
- 17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1998, pp.156~157, p.513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chapter3*



CHAPTER 3

제3장

김정은의 권력세습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2. 권력세습의 특징

제3장

3

김정은의 권력세습

북한은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으로 권력승계 준비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후계자 지위를 부여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이 갖고 있던 지위를 실질적으로 모두 승계함으로써 절차적 승계를 완성했다.

1. 권력기반 구축 과정

김정은이 권력 승계자로 지명된 일차적 배경은 그의 형들인 김정남, 김정철이 후계자 검증과정에서 김정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한데 있다. 김정남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후계

자로서 검증을 받았고, 김정철은 2003년부터 2005년 말까지 후계자로서 자질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10대 중반에 북한 컴퓨터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 말에 국가보위부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남은 1996년 이모인 성혜랑의 망명, 본인의 일본 밀입국 사건 이



일본 나리타공항의 김정남 (2001. 5)

후로 신임을 잃었다. 2001년 5월 김정남은 아들 및 두 명의 여성을 대동하고 도미니카 가짜 여권을 소지한 채 일본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려다 일본당국에 체포되어 추방되었다.

차남 김정철은 생모인 고영희의 후원 속에 2002년 이후 후계자로서 검증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2000년대 초반 일부 추종그룹이 '김정철 배지'를 만들고, 이상화를 시작한 징후들

이 있다. 그러나 김정철은 자질상의 결함 때문에 김정일의 신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된다.<sup>18</sup>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으로의 승계 가능성을 검토한 시기는 2006년 초로 짐작된다. 북한 당국은 2005년 9월 후계자의 자질문제에 대하여 ‘수령에 대한 충성과 영도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sup>19</sup> 북한 당국은 이러한 후계자 자질문제를 언급한 직후에 다시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라고 지적하고 핵심계층 내부의 분열 가능성을 경계했다.<sup>20</sup> 2005년 12월에 김정일은 승계논의 중단을 지시했고, 이는 진행중인 김정철로의 승계준비 중단을 의미했다.

2006년 북한 노동신문의 사설과 정론에는 김정일 이후 후계구도의 암시로 불만한 표현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10대 당시의 영웅담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다. 김일성은 14살이던 1928년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여 항일투쟁을 선두에서 지휘하였고, 김정일은 14살이던 1956년에 백두산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을 조직하여 행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뿐 아니라 혁명전통계승의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sup>21</sup>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혁명을



하는데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10대 청년의 혁명적 영웅담에 대한 강조는 3대 부자세습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sup>22</sup> 역으로 김정남, 김정철에 대한 불신 속에 3남 김정은에 대한 승계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심각한 건강이상이 발생한 직후로 보인다. 심각한 상태에서 벗어난 북한 지도자는 승계 예정자를 확정하고, 승계 관련 정치적 절차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일과 김정은(2010. 10. 10)

북한당국이 김정은을 차세대로 등장시키는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먼저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를 등장시키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대동하여 현지도하는 뉴스를 전하고, 대장칭호를 부여하고, 공식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2009년 10월 9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김정일 관련 동정을 보도하면서 ‘발걸음’이라는 합창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노래는 2009년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는데, 노래가사 내용 중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여...” 등은 김정은으로의 후계 진행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노래가사처럼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에게 북한은 대장 호칭을 부여했다.<sup>23</sup>

김정은을 등장시키기 전에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정치적 절차 준비와 관련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먼저 2009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2009년 북한헌법 개정이 이전의 헌법 개정에 비해 특별한 관심을 끈 이유는 바로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된 내외의 관심 때문이었다. 헌법 개정이 준비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기간인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4월 초순까지 북한체제는 지도자의 건강문제로 후계자 문제, 후계체제 유형문제에 대한 권력장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고민이 있었

을 것이다. 뇌졸중이라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니더라도 1942년생인 김정일의 나이를 고려할 때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 후계체제, 후계체제 유형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과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많다.

2009년 개정헌법은 이러한 북한 내부정치의 상황을 반영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후계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은 국방위원회(장)의 권한 강화이다. 국방위원장과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1972년 헌법 개정 방향과 유사하다.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통하여 북한은 ‘국가주석제’를 신설하여 국가주석에 권력집중의 구심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72년 헌법 개정을 전후하여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이 시기에 김정일은 ‘당 중앙’이라는 상징어로서 후계자 지위를 차지해갔다.

북한이 직면한 내부 정치 환경과 과제를 고려할 때 국방위원장 및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내용이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가지는 정치적 함의는 “권력기반이 취약한 새 승계 후보자에게 초반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2010년 6월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

정서'를 통해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 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 아울러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하여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당 체제를 다음 표와 같이 정비하였다.

〈2010.9.28 당 대표자회시 정비 내용〉

구분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당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구성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124명 (신규84명, 68%)</li> <li>• 후보위원 105명 (신규98명, 9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무위원 5명(김정일, 김영남 외 3명 신임)</li> <li>• 위원 12명(전병호 외 11명 신임)</li> <li>• 후보위원 15명(전원 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총비서국 1명</li> <li>• 당 비서 10명(김기남, 최태복 외 8명 신임)</li> <li>• 당 부장 14명(김평해, 주규창 : 2명 신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1명</li> <li>• 부위원장 2명(김정은, 이영호 : 신설직제)</li> <li>• 위원 16명(김영춘, 김명국 외 14명 신임)</li> </ul>

김정은에게 당과 국가 기구 중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부여한 것은 권력승계에 필요한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배려 때문이었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 대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

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의 규약이 북한 헌법을 지도하는 체제원리를 적용하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헌법상의 기관인 국방위원회를 지도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17명의 위원을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부위원장 직위에 김정은을 보직하여 단숨에 당과 내각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었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 개최 이후 김정은은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공개수행하고, 공식행사도 수행하여 당과 군을 장악해 갔다.



김정은의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2011)

## 1) 권력기반(power-base)

김정은으로의 승계준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7년 이후 갑작스럽게 부상하거나 중요직책을 맡은 군 인사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11일 북한군은 김영춘을 인민무력부장에, 이영호를 총참모장에 임명하였다. 김정은에 대한 군부 충성심을 결집시킬 인물은 총참모장인 이영호 차수로 보았다. 이영호는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차수로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영호는 포와 관련한 군사지식이 출중하며, 다른 군부 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처신이 신중했다고 한다.

당과 행정분야에 대한 영향력은 장성택을 통해 강화되었다. 1945년생인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이며, 김정일의 매제이다. 1989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장성택 주변에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1995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당 조직부 제1부부장 활동<sup>24</sup>을 한 장성택은 김정일을 제외하고 북한의 권력 정치 내부에 가장 많은 세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간 중에 장성택은 사법·검찰·공안기관에 대한 당 생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는 장성택(좌측에서 네 번째)

활 및 정책적 지도를 담당했다. 2003년 이후 활동이 위축되었던 장성택이 2006년 1월 새로 공식활동을 재개하였고, 2008년 초 그는 당의 사회통제 임무를 통제하는 당 비서국 행정부 부장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이후 권력 승계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김정일 일가의 단결을 형성하는 역할은 김경희가 맡았다. 1946년에 태어난 김경희는 김정일의 누이동생이며 1972년에 장성택과 결혼했다. 1975년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1과 과장, 1976년 당

국제부 부부장, 1991년 당 경공업부 부장을 담임한 바 있는 김경희는 당 및 정부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대장칭호를 받은 김경희는 김정은 형제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정치적 단결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김옥은 19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기술비서로 근무하였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옥은 김위원장의 개인 비서이자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레이디로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25</sup> 김옥은 2000년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수행하여 미국을 방문한 적도 있으며 김정일의 정치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에 대한 접근권을 통제하고 대미정책에 일정부분 관여하며, 체제유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북한의 승계과정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김옥은 김정은의 권력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권력준비 과정에서 대남도발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시기에 북한이 시도



한 주요한 대남도발은 다음 표와 같다.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기의 주요 대남도발〉

시기	내용
2009. 5. 25	2차 핵실험
2009. 11. 10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침범 후 선제공격. 대청해전 발생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천안함 폭침. 승조원 46명 사망
2010. 11. 23	연평도에 해안포 공격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 등도 김정은의 승계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제시한 강성대국 슬로건을 군사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도발시기를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0년 3월 26일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통해 군권장악과 관련하여 군사적 자질 중 대담성을 과시하였다. 김정일의 8.18 도끼만행사건과 견줄만한 대담한 도발을 통해 김정은은 북한군부의 다른 인사들과 차별화된 평판을 만들어 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서해 북방한계선에 대한 불만을 가졌지만 이러한 도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과도 차별화된 군사적 평판을 만들었다.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의 인양 모습(2010. 3)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파손된 민가(2010. 11)

한편, 김정은이 후계자 지위를 획득한 시기와 전후하여 박남기, 김일철, 이제강(사망)<sup>26</sup> 등이 세력을 잃어가고, 김정은을 후견할 세력 중심으로 권력기반이 강화되고 있었다.

## 〈후계체제 구축기(2010. 9. 28~2011. 12. 17)의 북한 주요 권력 변동〉

시기	내용
2010. 2. 3	박남기 계획재정부장 해임
2010. 4. 14	군 장성 100명 진급
2010. 5. 14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해임
2010. 6. 2	이제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사망
2010. 6. 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 (총리 및 부총리 교체,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 임명, 김명국 복권)
2010. 9. 28	당 대표자회(정치국 재정비, 김정은 • 김경희 주요보직 임명)
2010. 11. 6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사망
2011. 3. 16	주상성 인민보안상 해임
2011. 4. 7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전병호 소환, 박도춘 국방위 위원, 이명수 인민보안부장 임명)

## 2) 자질(personalities)

2010년 9월 노동당 대표자회 이전 기간에 김정은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실질적 자질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다만 후계자로 공식 지명되는 과정에서 아버지 김정일과 유사한 다음 몇 가지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사랑을 정치적 신뢰로 연결시키는 자질이 있었다. 김일성과 비슷한 용모로 김정일 및 권력 엘리트들

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김정은이 이러한 사랑을 정치적 기대로 만드는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과 같은 권력의지를 갖고 있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권력 승계자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김정남 추종세력을 제거하는데도 대담한 조치를 취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27</sup>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방해세력을 식별하고, 이를 제압하는 결단을 보였다.

셋째, 김정일과 같이 후천적으로 통치를 위한 학습에 부지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6년부터 2001년에 이르는 스위스 베른 유학시절 그를 지켜본 한 인사는 “부지런하고 야심에 찬 학생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김정은의 어린 시절을 가까이서 지켜본 후지모토 겐지는 “농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서 매우 지기 싫어하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다.<sup>28</sup>

북한의 선전 자료들은 김정은의 군사적, 과학적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4월 5일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김정일과 함께 ‘광명성 2호’ 발사 현장을 관찰하였고, 4월 14일 ‘강성대국 불보라’ 명칭의 김일성 생일 축포야회를 직접 조직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보병지휘관 3년제와 연구원 2년제를 2006년 12월 24일에 졸업하면서

‘인공위성자료와 GPS수신기 좌표를 활용한 작전지도 개발을 통하여 포병의 화력타격 정확성 보장방안’을 발표하는 등 후계자 내정 이전부터 군사적 자질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sup>29</sup> 2009년의 150일·100일 전투, CNC(컴퓨터 수치제어)에 의한 산업시설 관리, 함흥 비날론 공장 가동, 대계도 간척지 개발도 김정은이 주도한 것으로 소개하였다.<sup>30</sup>

김정은은 김정일과 비슷한 생래적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 김정일의 사랑을 정치적 자산으로 만 들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후천적 정치학습을 부지런히 했다. 아울러 권력경쟁 세력을 대담하게 제압하고,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대담한 도발을 통해 군사적 카리스마를 만들었다.

### 3) 정책능력(policies)

김정은이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을 김정은이 주도했는지, 김정일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주도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김정은 후계체제와 관련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1</sup> ① 구권과 신권

의 교환비율은 100:1이며, 개혁직후 미화 1달러(USD) 대 신권 1원(NKW) 공식 환율은 1:96.9이다. ② 구권과 신권의 교환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다. ③ 북한 당국이 정한 교환한도는 처음 가구당 10만원(신권 1천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가구당 한도를 기본 10만원에서 1인당 5만원씩, 4인 가족의 경우 30만원까지 추가 상향 조정되었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전후하여 북한은 △종합시장 폐쇄, 축소 △내국인 외환거래 및 사용 전면 중단 △밀수밀매 단속 강화, 국경지역 단속 강화 등의 경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이 개혁의 책임자인 박남기를 숙청한데서 나타나듯이 실패했다. 실패한 화폐개혁은 김정일의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내외의 신뢰를 만드는데도 실패했다.



북한의 신화폐(2009)

군사정책과 관련해서는 2차 핵실험, 핵융합능력 과시 등을 통해 핵보유체제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시대와 차별되는 대남군사도발을 감행하고, 포전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전력 증강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전력을 발전시켜 대남 도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 황금평,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미국과 관계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남북대화-미북대화-6자회담 본회담’이라는 단계적 6자회담을 활용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핵참화를 언급하며 핵무기 보유사실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 핵실험 결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 6자회담에 대한 북한 입장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정책들에 김정은의 결심,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승계기간에 주요 정책에 미친 김정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도기간에 진행된 주요 정책에 김정은이 상당한 정도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연륜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김정일의 정책자질은 선전선동으로 조작될 수밖에 없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2009년 10월 5일에 보도한 김정은 관련 다음과 같은 내부 강연 자료가 그러한 조작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북한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sup>32</sup>

“김정은 동지는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이며, 포병 부문에 매우 정통하고 입체감과 정확도를 갖춘 새로운 군사지도를 만들었다. 김정은 대장동지는 절세의 위인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으로 아버지가 되는 수령님(김일성)과 경애하는 장군님(김정일)을 꼭 닮은 선군영장이다”

## 2. 권력세습의 특징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였다. 김정일 사망 발표 이후 당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서열 1위로 한 232명의 장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후계자로 사실상 대내외에 발표하였다. 김정은은 김정



일이 사망한 직후부터 불과 4개월여 기간 동안에 과거 김정일이 갖고 있던 정치적 지위를 절차적으로 모두 차지했다.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노동당 제1비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음 정치일정과 회의를 통해 차지했다.

#### 〈김정은의 절차적 권력승계 과정〉

시기	내용
2011. 12. 30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최고사령관 추대
2012. 4. 11	당 대표자회: 당 제1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2012. 4. 13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권력승계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노동당 제1비서의 권한과 위상을 이전 노동당 당규의 노동당 총비서의 권한과 위상과 같이 하였다.<sup>33</sup> 아울러 헌법개정<sup>34</sup>을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한이 이전 헌법의 국방위원장과 동일하도록 조치했다. 2012년 7월 18일 김정은은 원수로 추대되어 김정일이 갖고 있던 당 및 군의 주요 지위를 모두 차지하였다.

김정은이 권력승계를 준비하고 차지한 과정은 ‘김일성-

김정은 승계과정'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준비된 권력승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기간의 차이에 따라 차이점도 발견된다. 권력승계와 관련한 「3Ps + X 이론」을 토대로 검토할 때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권력기반 확보와 관련하여 김정은은 당정군의 권력기반을 동시에 장악해 갔다. 김정일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하는 선차적 권력장악을 추진한데 비해 김정은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당 권력과 군 권력'을 거의 동시에 장악해 갔다.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인 장성택이 갖고 있는 권력기반을 활용했다. 아울러 조기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일부 주요 인사를 숙청하는 방법<sup>35</sup>을 선택했다. 둘째, 정책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화폐개혁 등 충격적 방법을 선택했으나 실패했다. 유럽에서의 수학경험을 살려 '세계화, CNC강조' 등을 통해 정책능력에서 차별화된 정책적 관심을 부각시키려 했다. 셋째, 정치적 카리스마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다양한 대남도발을 활용했다. 넷째, 김정일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전에 권력승계에 대한 김정일의 확고한 지시를 미리 받아 놓았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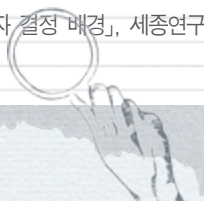
〈김정은 등장 이후 숙청을 통한 당·정·군 권력기반 강화 내용〉

인물(직책)	시기	내용	배경
김일철(인민무력부장)	2009. 2 2010. 5	인민무력부장 해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해임	군권 강화
박남기(당계획경제부장)	2010. 3	당 중앙위원회 부장 해임	행정권 강화
이제강(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	2010. 6	교통사고로 사망	당권 강화
주상성(인민보안부장)	2011. 3	인민보안부장 해임	당권 강화
홍석형(당 경제비서)	2011. 6	당 중앙위원회 비서 해임	행정권 강화
우동축(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2012. 3 이후	공개활동 미보도	행정권 강화
이영호(총참모장)	2012. 7	총참모장 해임	군권 강화

김정은으로 권력승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 승계과정과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절차적 승계를 매우 서둘렀다는 점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일성 사망 이후 2012년 4월 13일까지 불과 4개월 이내에 절차적 승계를 마무리지었다. 권력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당과 군의 절차적 승계를 완성하여 지위에 걸맞는 권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중시했다. 노동당 대표자회, 정치국 상무회의, 최고인민회의 등의 권한과 의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f o o t n o t e

- 18 정성장,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 「신동아」, 2009. 7, pp. 246~259
- 19 「조선중앙방송」, 2005. 9. 26 ; “...당의 위업계승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당의 위업계승 문제는 단순히 혁명의 대가 바뀌는 시기에 당과 혁명의 영도적 지위를 넘겨주는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혁명위업을 이끌어 나가는 영도의 계승문제,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 문제...당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데서 기본은 정치적 수령이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온 사회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갖춘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만이 될 수 있다...”
- 20 「조선중앙방송」, 2005. 9. 28
- 21 대표적으로는 “위대한 기수”, 「노동신문」 정론, 2006. 2. 13
- 22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 12, pp.18~19
- 23 이영종, 앞의 책, pp.18~21
- 24 1994년 7월에 망명한 탈북자 강명도(강성산 총리의 사위)는 장성택이 1993년부터 당 조직부 제1부부장 활동을 했다고 한다.
- 25 「연합뉴스」, 2008. 3. 5
- 26 이영종은 권력투쟁 속의 타살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앞의 책, pp.135~138
- 27 2009년 4월 초, 김정남 추종세력의 집회장소인인 우암각 습격을 김정은이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늘봄플러스, 2010, pp.141~170
- 28 정성장, 「김정은의 성장과정, 자질과 후계자 결정 배경」, 세종연구소, 2010. 9. 28



## footnote

- 29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 「마이니치신문」, 2009. 9. 8, 이 내부 문건은 2009년 6월경 군 간부 교양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30 김갑식, “북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 개최 결과와 향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26호, 2010. 10. 4
- 31 “북, 새 화폐 교환한도 높여”, 「연합뉴스」, 2009. 12. 1
- 32 이영종, 앞의 책, p.200
- 33 『조선중앙통신』, 2012. 4. 12, 2012년 4월 11일 개최된 당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규약의 주요내용은 (1) 김정일 동지는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고 노동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며, 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 (2)노동당 제1 비서직을 새로 내오고 노동당 제비서는 당이 수반으로서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며,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실현해 나간다.
- 34 『조선중앙통신』, 2012. 4. 13,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 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하였다”고 밝혔다. 개정헌법 제107조: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35 한기범,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권력 구도의 특징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2012. 10. 4, pp.12~15
- 36 『로동신문』, 2012. 1. 18, 김정일이 2011년 10월 8일 김정은으로의 승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chapter4*



CHAPTER 4

제4장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비교

1. 환경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4

## 제4장

#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비교

### 1. 환경적 측면

1964년 노동당 당무를 시작하여 긴 세월 동안 승계준비를 통해 절대권력을 성공적으로 승계한 김일성-김정일 승계과정과 승계자로 공식 지명되어 승계준비를 시작한 김정일-김정은 승계과정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특히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의 승계환경이 너무나 다르고, 승계환경의 차이는 승계과정의 차이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1970년대 승계환경은 북한 체제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첫째,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질서 차원의 냉전체제는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적어도 국제



사회는 유엔헌장의 틀 속에서 북한 내부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공산화 도미노 현상 속에서 북한은 제3세계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위상이 강화되어 있었다.

둘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은 다소 유리한 군사적, 경제적 입장에 있었다. 북측이 승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남북관계, 한반도 내부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다. 남측에 비해 유리한 경제적 조건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탈북하거나, 국내에서 도전할 징후가 거의 없었다.

셋째, 당시 김일성은 50대 초반으로 건강하였고, 건강문제로 인해 권력이 불안정하지 않았다. 김일성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후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시기의 승계환경은 다음 몇 가지의 도전적 요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첫째, 세계 및 동북아 정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고권력자의 교체 차원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의

문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둘째,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의미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2만 4천명이 넘는 북한주민이 북한체제를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수십만의 북한주민이 체제를 이탈하고 있다.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실은 중장기적으로 권력의 안정적 승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북 군사관계에서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이라 북한식 핵억지력을 갖고 있다.

셋째, 김정일이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후견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건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뇌졸중과 노인질환을 앓고 있던 김정일은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준비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생존하지 못하였다.

## 2. 절차적 측면

이러한 ‘승계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계절차와 내

용'면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절차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절차와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 절차와 주요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 일정 비교〉

김정일		김정은	
시기	내용	시기	내용
'42. 2	소련 출생	'82. 1	(미상)
'72. 10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10. 9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74. 2	노동신문, 김정일을 '당 중앙'으로 호칭		
'74. 10	'70일 전투' 발기, '3대혁명소조운동'을 주도	'09. 9	'100일 전투'
'76. 8	8.18 도끼만행 사건	'10. 3	천안함 폭침
'80. 10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10. 9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83. 10	아웅산 테러	'10. 11	연평도 포격
'90. 5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91. 12	인민군 최고사령관	'11. 12	인민군 최고사령관
'92. 4	인민군 원수	'10. 9	인민군 대장
'93. 4	국방위원회 위원장	'12. 4. 13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97. 10	노동당 총비서	'12. 4. 11	노동당 제1비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위의 <권력승계 일정 비교>에 나타나는 내용을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출생년도와 관련하여 북한은 김정일이 1942년에 태어나고, 김정은이 1982년에 태어났다고 한다. 김정은의 출생연도와 관련된 논란,<sup>37</sup> 그리고 북한당국이 ‘대를 이은 지도자 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작위적으로 출생연도를 40년 간격으로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노동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시기를 고려할 때 김정일은 30세였는데 비해, 김정은은 28세로서 결코 김정은이 김정일에 비해 크게 빠르지 않다.

셋째,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8년이 지난 이후에 노동당 비서 등 주요 직책을 맡았는데 비해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동시에 맡았다.

넷째,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선출되기 4년여 전인 1976년에 ‘8.18 도끼만행 사건’을 주도하여 군권을 강화했는데, 김정은은 공식 후계자로 지명되기 6개월여 전에 천안함 폭

침 사건을 일으켰다.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에 미얀마 테러를 자행하였는데 비해 김정은은 공식 후계자로 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연평도를 포격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일이 3년 3개월만에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어 권력승계 절차를 완성하였는데 비해 김정은은 불과 4개월만에 권력승계를 완성했다.

앞서 고찰했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과정상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동당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권력을 장악하는 순서로 승계준비를 진행했고, 자질 및 정책능력은 선전선동 능력에 의해 나타났다.

둘째, 권력장악에 절대로 필요한 군권 장악을 위해서 대담한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군심을 장악했다.

셋째, 잠재적 권력경쟁 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했다.

넷째, 김일성 사망 이후에 권력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생존시에 이미 권력승계를 진행했다. 1991년 12월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고, 1993년 4월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이미 당·정·군 권력체계에서 김일성 생존시에 군사권력을 인수했음을 말한다.

다섯째,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다. 1980년대 6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했다.

김정일 역시 아들 김정은에게 같은 방법으로 권력을 계승하기 위한 승계절차를 준비했다. 그러나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단축해서 진행시켰다.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순차적으로 장악하는 승계과정을 거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당권과 군권, 그리고 선전선동에 의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장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승계를 준비했다.

첫째,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양 권력의 접점기구에 해당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체

제를 움직이는 17명의 위원을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부위원장 직위에 김정은을 보직하여 단숨에 당과 내각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려고 했다.

둘째, 2차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김정은이 군부 내에서 독자적 카리스마를 만들도록 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군 내부적으로 이를 김정은의 군사적 성과로 만들었다.

셋째, 잠재적 권력경쟁자인 김정남에 대한 김정은의 견제, 당 간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북한 체제의 정치적 구심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넷째, 김정일 사후가 아니라 김정일 생존기간에 권력승계를 공표하고 준비해 갔다.

다섯째, 단계적으로 권력승계를 진행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한 이후 2011년 10월 8일에 실질적 권력승계를 지시했다.

권력승계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승계 준비기간 차이

에 있다. 준비기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김정은 권력기반 취약, 정책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 리더십에 대한 신뢰 부족을 만들었다. 이러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성택, 김경희, 최용해라는 후견인이 갖고 있는 권력기반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럽식 대중 정치스타일을 접목한 통치기교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의식주에 대한 관심 과시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려 했다.

#### f o o t n o t e

- 37 일본의 NHK방송은 2009년 12월 10일, 북한이 김정은의 나이를 당초 알려졌던 것 보다 더 많게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방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1984년보다 2년 더 빨리 태어난 것으로 조정했다.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chapter5*



CHAPTER 5

제5장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및 안정성

1. 권력구조
2. 체제운영
3.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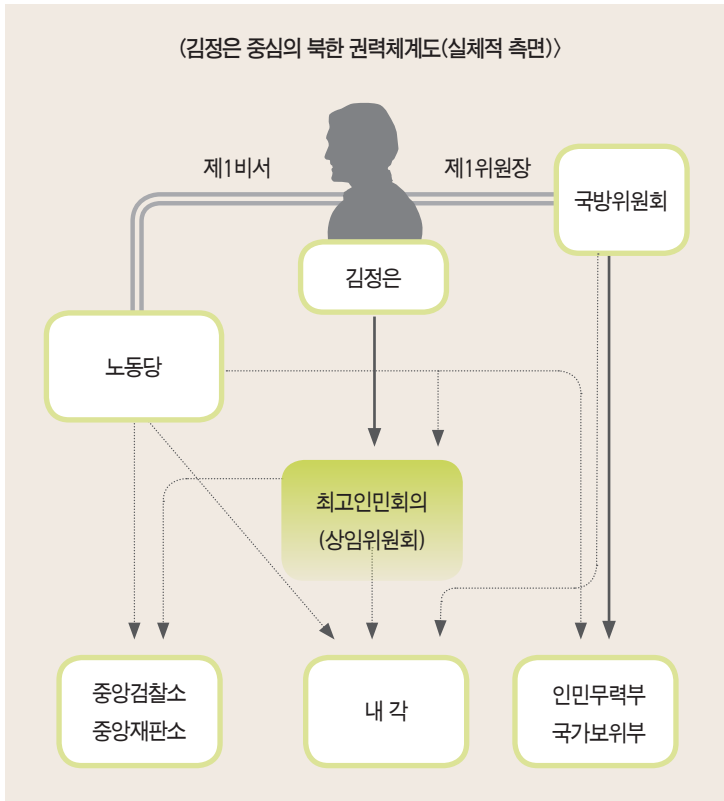
## 제5장

##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및 안정성

## 1. 권력구조

김정은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최고직책을 모두 맡고 있다. 김정은은 노동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의 상무위원, 비서국의 제1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헌법상의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현행 헌법<sup>38</sup>상의 최고지도자 지위는 제1국방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제1국방위원장을 헌법상의 북한의 최고지도자이며 군사적 최고지도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1국방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①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 ②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 ③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 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④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⑤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 ⑥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한편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 위원을 일부 교체하였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최용해, 김원홍, 이명수는 새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전병호, 주상성, 우동측은 해임되었는데 변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최고인민회의(2012. 4) 국방위원회 인사의 주요 인적사항〉

이름	직책	군계급	겸직 현황과 주요 경력	비고
김정은	제1위원장	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위원장, 노동당 제1비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사령관	신임
김영춘	부위원장	차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무력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前인민무력부장, 前인민군 총참모장	연임
이용무	부위원장	차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前 인민군 총정치국장, 前 교통위원회 위원장	연임
장성택	부위원장	대장	당 중앙위원회 행정부장,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연임
오국렬	부위원장	대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前 인민군 총참모장	연임

이름	직책	군계급	겸직 현황과 주요 경력	비고
최용해	위원	차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군 총정치국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前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신임
김정각	위원	차수	인민무력부장,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연임
박도춘	위원	대장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신임
김원홍	위원	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신임
이명수	위원	대장	인민보안부장,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신임
주규창	위원	상장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위원회 기계공업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연임
백세봉	위원	상장	제2경제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연임

최용해, 김원홍, 이명수 등 신임 국방위원들이 향후 국방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당의 핵심기관은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볼 수 있다. 2012년 9월 현재 노동당 주요 기구의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 〈노동당의 주요 인물 현황〉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b>상무위원:</b>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용해	<b>비서:</b> 김경희, 박도춘, 김기남, 최태복,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b>위원장:</b> 김정은 <b>부위원장:</b> 최용해, 현영철
<b>위원:</b>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이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전병호, 변영립		<b>위원:</b>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현철해, 김원홍, 이명수, 주규창, 김명국, 김경욱, 정명도, 이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검, 우동측, 최상려
<b>후보위원:</b>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이병삼, 노두철, 조연준, 김락희, 이태암, 우동측		

당의 중심인물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다.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용해가 당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성택, 김경희의 당내 영향력도 막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군정치 하에 군의 주요기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야전군 출신의 총참모부 영향력이 약화되고, 총정치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총정치국 국장인 최용해, 부국장인 박재경, 심상대, 한



동근 등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인민무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각, 국가안전보위부장인 김원홍의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 2. 체제운영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김정은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체제운영상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는 김정일이 갖고 있던 주요 당·군의 지위를 모두 차지했다. 이로써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집단지도 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둘째, 노동당 규약 및 헌법 규정에 근거한 의사결정 방식이 진행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 정치국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셋째, 헌법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선군정치가 슬로건 차원으로 그 위상과 기능이 약화되고, 당 우위 정치가 재정립되고 있다. 넷째, 엘리트 충원 및 권

력정비와 관련하여 친인척인 김경희와 장성택의 영향력이 유지·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정치위원 경력의 군부가 야전군 경력의 군부인물에 비해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김정은 개인의 차별적 리더십도 몇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첫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곧바로 실패를 시인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둘째, 주민을 대상으로 장시간 공개연설을 하고, 주민 접촉행보활동을 하는 등 대중 정치를 흉내 내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빈번하게 강조하고 있다. 넷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하여 국제적 규범준수를 강조하고 예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과 조치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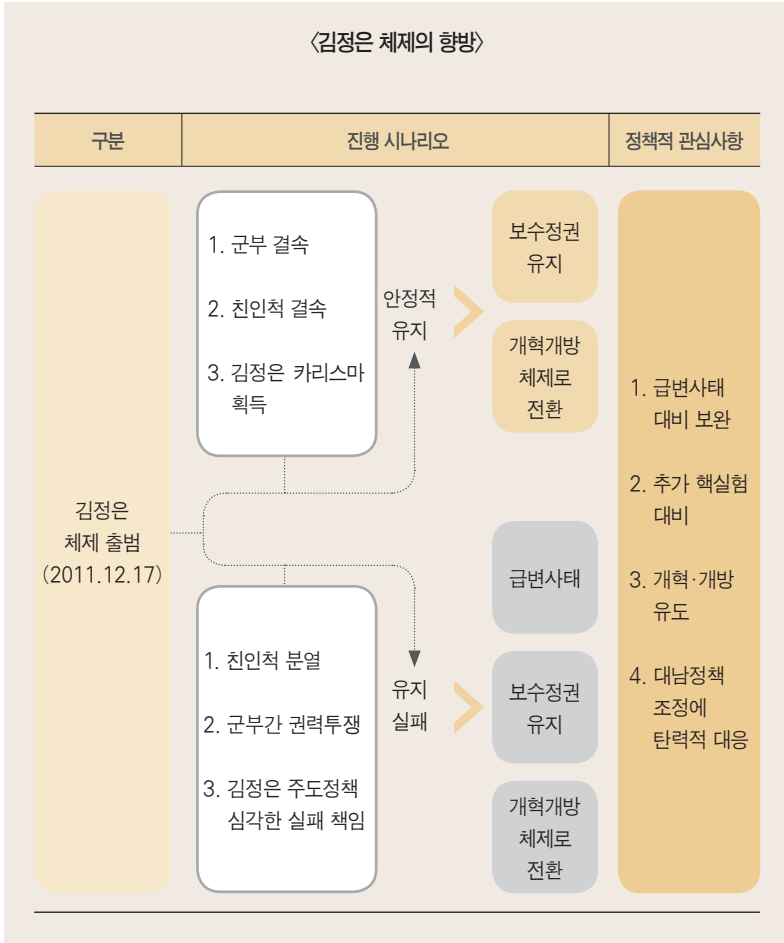
#### 1) 체제의 미래

김정일 사망 이후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기대했다. 조속한 북한체제의 안정이 북한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새로운 북한체제에 대한 기대가 급속하게 소멸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김정은을 중심으로 유일영도체제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하여 일부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가 승계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 몇 가지 도전요소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2년 7월 15일에 전격적으로 이영호가 해임되자 권력정치 내부에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권력내부가 단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승계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형제들과의 단합을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권력의 세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둘째는 군부의 지지 확보 문제이다. 김정일 시대에 영향력이 커진 군부가 내부 분열 없이 지속적으로 김정은을 지지할 것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셋째는 김정은이 주민들의 정치적 만족을 제고할 정책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김정일 이후 체제와 관련한 이러한 변수를 중심으로 향후 북한체제의 향방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 표와 같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정적 승계를 거쳐 현재와 같은 보수정권을 유지 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승계이후 군부 결속 및 친인척 결속에 성공하여 체제안정에 필요한 국내 지지

기반을 확보하되,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및 노동당 지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혁·개방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안정적 승계를 거쳐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승계이후 군부 결속 및 친인척 결속에 성공하여 체제안정에 필요한 국내 지지기반을 확보하되, 유일영도체제의 변화가 모색되어 권한의 분산이 다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개혁·개방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승계실패를 거쳐 급변사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친인척 분열, 군부 갈등, 정책실패로 붕괴되고 김정은이 실각하는 상황을 말한다. 승계실패 이후 한·미 당국이 상정한 급변사태로 장기간 진행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승계실패를 거쳐 다시 보수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친인척 분열, 군부 갈등, 정책실패로 붕괴되고 김정은이 실각하는 상황을 말한다. 승계실패 이후 단기간에 군부 강경파 등에 의해 노동당 유일체제로 유지되는 상황이 된다. 김정일 시대의 대내외 정책을 유지한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승계실패를 거쳐 개혁·개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친인척 분열, 군부 갈등, 정책실패로 붕괴되고 김정은이 실각하는 상황을 말한다. 승계실패 이후 단기간에 개혁·개방파가 득세하여 이전체제와 확연히 구분되는 정치체제를 수립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 2)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

2011년 들어 튀니지, 이집트, 예멘, 리비아, 바레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대한 정치변화가 진행되었다.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했으며, 리비아에서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졌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정치변화를 위한 노력들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되는 변화들에 대해 일부 세계 석학들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구소련과 동유럽에 구축되었던 변화에 버금가는 '대변화'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벽두에 진행된 중동의 정치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변화 바람과 동력이 동진하고 동진하여 중국을 거쳐 북녘에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국가와 북한의 정치체제와 사회양상을 고려할 때 중동에서 진행되는 변

화동력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2011년 1월 14일 국민들의 시위로 정권이 붕괴된 튀니지의 국민 1인당 소득은 약 4,000 달러에 이른다. 프랑스의 오랜 식민지를 경험을 하였던 튀니지의 국민소득 수준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할 당시 수준의 국민소득이다. 1956년 독립하기 이전에 프랑스의 식민지하에서 주민들은 유럽식 정치문화를 잘 숙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바라크 정권이 시위로 퇴진한 이집트는 국민 1인당 소득 수준이 약 2,560 달러 수준에 이르고, 대통령 중심제인 공화제를 택하고 있다. 예멘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800 달러 수준에 이르는 공화제이다. 리비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8,220 달러 수준이고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세습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바레인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000 달러에 이른다.

중동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정권교체에 있다. 특히 외양상으로 공화제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인(一人), 일가(一族), 일당(一黨)의 장기집권체제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고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국가의 국민들이 현존하는 정치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힘과,



리비아 혁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모습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힘은 경제적 힘, 도덕적 힘, 군부의 선택,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대체적



으로 이들 중동국가들의 국민들은 북한주민에 비해 정부와 분리된 국민, 시민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정치변동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이집트, 예멘이 약 3,000 달러 수준이고 리비아는 20,000 달러 수준이다. 적어도 며칠, 몇 개월 동안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이 가능하고, 투쟁이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은행 공식통계로는 1,000 달러 미만이다. 실물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동국가 주민들에 비해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정치적 변동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항운동을 통한 정치적 변동에 있어서 도덕적 힘이란 ‘저항정신의 강도’를 말한다. 중동국가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대체하는 종교적 신심을 갖고 있다. 정치학적 용어로 세속화(Secularization)가 덜 되어 있다. 일상생활과 정치생활에서 정치와 종교가 미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종교적 가치를 앞세워 정치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동국민들의 종교적 태도는 지배집단에 의해 권력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정치적 복종의 에너지가 되지만, 저항엘리트(counter-elite)에 의해 거대한 반정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1979년 호메이니가 만든 반정부 에너지가 바

로 그러한 반정치, 불복종 에너지의 전형이다. 이슬람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종교적 가치를 내세워 현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에는 현존 정부에 저항을 부추길 수 있는 가치체계가 매우 미약하다. 정치문화의 전통과 관련해서도 이들 중동국가 국민들은 유럽의 대의제 민주정치제도 하에서 식민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의 권리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일본 식민시대-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경험한 북한주민들은 정치적 저항을 경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동국가 주민들에 비해서 북한주민이 정치적으로 저항할 도덕적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러나 북한에도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24,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탈북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집단적 의식변화를 증거한다.

중동국가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정치적 변동을 갈구하게 되었고, 죽음을 무릅쓴 정치투쟁을 하게 되었는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신혁명으로 봐야 한다. 인터넷, 위성방송으로 수신되는 글로벌 뉴스 속에서 중동국가 국민들은 자신들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정치환경을 평가하는 눈을 가지

게 된 것이다. 현재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명을 재스민 혁명이라고 한다. 재스민은 꽃 이름으로, 튀니지의 나라꽃이다. 재스민 혁명을 이끈 것은 이동통신,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재스민꽃 향기를 옮긴 것은 벌과 나비, 바람이 아니라 인터넷, 이동통신이라는 괴물인 것이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정치변동을 예측해 보려면 북한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터넷, 이동통신 현황을 평가해 봐야 한다. 현재 북한지역에는 정확하게 통계를 잡기 힘들지만 약 100만대의 모바일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놀랍게도 북한의 이동통신은 이집트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2008년 12월 15일 북한 조선체신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텔레콤은 평양에서 '3세대이동통신봉사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라스콤텔레콤은 이집트의 대표적인 통신회사다. 북한체신회사는 약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집트는 평양 유경호텔건축 완공에 필요한 자본을 지원하고 통신회사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적어도 북한지역에서 이동통신공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증가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정치변화가 북한에서도 싹틀 가능성이 있다.

중동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권력세습자 김정은이 직접 중동사태를 우려해 사상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북한 지도자들은 재스민혁명의 동진을 우려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사태를 보면서 북한은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동통신과 인터넷 정책을 통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평양시민

### 3) 북한군의 단결 여부

김정은 체제는 2012년 7월 5일 총참모장 이영호를 전격 해임하고 현영철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영호 해임은 군부 내부 갈등, 권력내부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 갈등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문가들은 그러한 갈

등이 김정은 체제를 단기간 내에 동요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결속 여부는 김정은 체제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등장 이전인 2008년 이전에 비해 북한 군부의 주요직책 변화가 빈번하다. 김정은 등장 이후(2009 ~ 2012. 9)에는 군 지휘부와 공안기관 책임자들이 다음 표와 같이 교체되었다.<sup>39</sup>

〈김정은 등장 전후 주요 군부인사 변동 내용〉

구분		2005 ~ 2008	2009 ~ 2012
군	총정치국장	'95. 10 조명록	'12. 4 최용해
	총참모장	'95. 10 김영춘 → '07. 4 김격식	김격식 → '09. 2 이영호 → '12. 7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00. 9 김일철	김일철 → '09. 2 김영춘 → '12. 4 김정각
공안	국가안전보위부장	미상	'12. 4 김원홍
	인민보안부장	'04. 7 주상성	'11. 4 이명수

\* 총정치국장: 조명록 사망('10. 11) 이후 '12. 3까지 공석

\* 김격식: 총정치국 제1부국장('07. 3 ~ '12. 4)

\*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09. 9 ~ ), '12. 3 이후 우동측 신원 미식별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영향력이 증대한 군부 인사는 최용해, 현영철, 김정각, 김원홍, 이명수 등

으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소멸된 군 인사는 이영호, 김격식, 김일철, 김영춘, 우동측, 주상성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할 수 있는 갈등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체제와 군부의 갈등이고, 둘째는 군부 내부의 갈등이다. 체제와 군부의 갈등은 군부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퇴조하는데 따른 군부의 불만이 조직화되어 김정은 체제에 반기를 드는 경우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역으로 체제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에 군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당료들이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할 수 있다. 2012년 7월 5일 이영호가 숙청된 것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분석된다. 김정은 체제는 공식적으로 유신통치 유지의 맥락에서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당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선당정치’를 복원하고 있다. 당료 출신인 최용해가 총정치국장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군을 제어하는 구도가 지속될 경우 군의 불만이 축적되어 갈 수 있다.

군 내부의 갈등은 정치위원 출신 군부 인사와 야전군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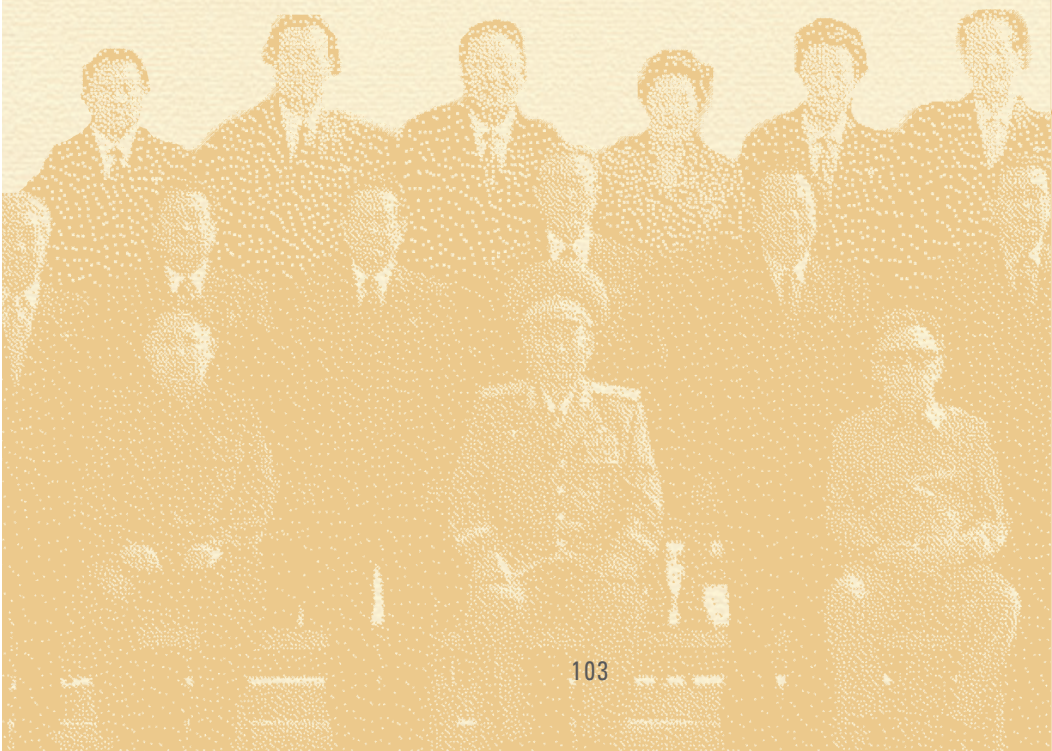
신 군부 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군 인사들은 대체로 군 정치위원 경력을 갖고 있다. 김정각, 김원홍은 군 총치국 부국장 경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야전군 및 공안기구 경력만 갖고 있는 이영호, 김격식, 김일철, 주상성, 우동측 등은 실각하거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실각한 야전군의 불만이 군내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 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세대교체 과정에서 군 원로와 신진 군부인사 사이에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형성된 북한의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군부의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퇴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2012년 10월 6일 남북한 공동관리구역에서 북한병사가 남측으로 귀순한 일<sup>40</sup> 등은 군부 입지를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개혁·개방에 관심이 많은 장성택, 최용해의 입지 강화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부의 불만은 누적될 것이고, 그 불만이 권력장치 내부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f o o t n o t e

- 38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 헌법을 개정했다.
- 39 한기범, op.cit, p.12
- 40 2012년 10월 6일 12시 6분경 경기도 파주의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가 상관을 살해하고 귀순하였다. 『연합뉴스』, 2012. 10. 6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chapter6*



CHAPTER 6

제6장

맺음말

## 제6장

## 6

## 맺음말

북한의 권력교체는 수령의 교체를 의미한다. 북한이 국내정치에서 발전시킨 수령체제는 정치이론에서 조망하면 세습 왕조 체제와 같은 절차와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권력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적 모델’은 바로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과정을 답습한 내용이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으로서 절차적 승계는 20년에 걸친 김정일로의 승계과정을 3년으로 압축하여 세습을 완성한 것이라고 함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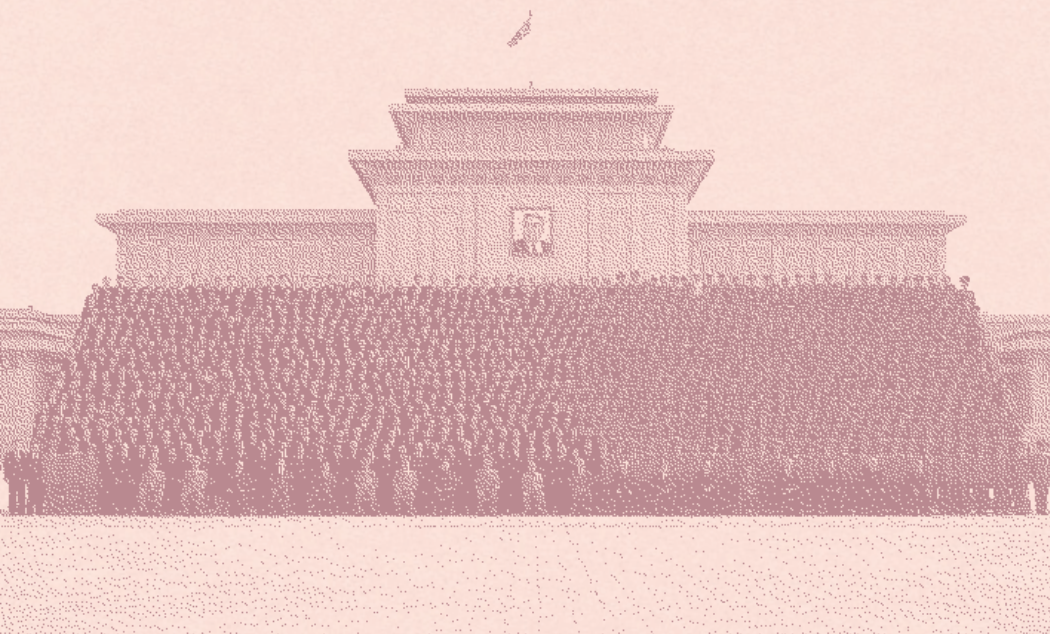
김정은 사후 북한체제는 단기간에 절차적으로 김정은 체제로 전환되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장남 김정남의 반발이 노출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친척을 결속하고, 군부를 조기 장악하여 안정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권력기

반과 관련하여 김경희와 장성택에 대한 의존이 높다. 김경희의 유고나, 장성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권력기반 자체가 동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는 새 지도자의 정책능력과 관련하여 주민의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승계준비 과정에서 시도한 '화해개혁'의 실패는 경제개혁과 관련한 다른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 대미정책의 혼돈 등은 군사정책 및 대외정책에 대한 정책능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통해 국내 카리스마를 만들었지만 잦은 군부 인사교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군권 장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3Ps + X 이론」에 따르면 전임 지도자의 유고 이후 5년 정도 체제가 유지되면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4년 이상 김정은 체제가 지속된다면 일단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정적 승계와 유지의 중요한 변수는 친인척의 단결, 군부단결, 주민의 충성심 유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친인척의 단결 문제는 김경희의 생존기간, 장성택과의 마찰 관리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군부단결은 이영호 해임이 상징하듯 지켜보아야 할 요소가 많다. 선군정치론 퇴조 분위기에 따른 체제와

군부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정치위원 출신의 군부인사와 야전군 출신 군부인사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군부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두 가지 방향의 갈등이 김정은 체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주민의 충성심 이탈도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탈북행렬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공동관리 구역의 군인이 귀순하는 등 내부 충성심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 공급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유통 구조의 변화도 김정은 체제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권력승계가 가능한 가장 본질적 이유는 유일영도 체제, 수령론을 북한주민이 받아들이는 정치문화에 있다. 역으로 이러한 정치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통제 및 징벌 메커니즘이 북한식 승계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잦은 공안기관 및 군 지휘부 교체는 이러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 중앙일보사, 1995
- 곽승지, 「북한의 후계자론과 권력승계 과정」, 『안보연구 제23호』, 1993
-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성철 외, 『김정일 연구: 리더십과 사상( I )』, 2001
-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리론』, 평양출판사, 2003
- 김종우 역, 『김정일의 북한, 내일은 있는가』, 청정원, 1999, pp.145~159
- 박한식·고병철, 「김일성 이후의 북한정치 전망」, 『김일성 이후의 북한』, 국토 통일연구원, 1990, pp.11~13
- 배성인,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북한연구학회보』 제4권 제1호, 2000
- 백승주, 『포스트김정일체제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 한국국방연구원, 2009
- 백승주, 「주요 북한군부 엘리트의 집단별 특징 및 정치배경 분석」, 『변환시대의 남북군사관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2009
- 백승주·김구섭, 「김일성-김정일 초기 권력승계의 전망 및 대책」, 국방연구원, 1992
-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 바다출판사, 2003



- 이관세**, 「김정일 후계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89
-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 통일연구원, 2003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2007
- 이기동**, 「김정일 후계구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북한』 2004년 4월호
- 이영종**, 『후계자 김정은』, 늘품플러스, 2010
- 이종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이한영**, 『김정일 로열패밀리』, 시대정신, 2004
-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정성장**, 「post-김정일체제전망: 후계자문제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33집 1호, 2008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2호, 2005
- 정성장**, 「김정일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한국정치학회보』, 2007
- 전경만 외**, 「중·소 및 동구의 개방화와 북한의 변화전망」, 국방연구원, 1990
- 차두헌**, 「김정일 권력승계에 있어서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 최진욱**,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통일부**, 『2011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2011



**통일부**, 『2011 북한의 주요인물』, 2011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한울사, 1999

**후지모토 겐지 저·신현호 역**, 『김정일의 요리사』, 월간조선사, 2003

Naval War College, "China in the Near Term", 1994.8.10

Leslie Holms, *Politics in the Communist World*, Oxford University, 1986

「내외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18 북한의 의료실태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21 북한의 체육실태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23 북한의 대남전략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비매품〉

개정판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전화 02)722-7123

“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지위를  
승계하며 절차적 승계를 완성했다.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함으로써 북한당국  
스스로 북한 체제가 '세습군주제'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